



RAONATTI 4TH

# Vietnam

## Monthly Report

2010년 12월 '성숙'

RAONATTI 4TH



이미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 주위 사람들도, 환경도, 일도. 이런 익숙함 속에서 성숙기를 거처간 12월 한 달. 베트남 팀은  
뭘 보고 뭘 느꼈을까??

1. 12월 특집: 아디가 바라 본 베트남 I <오토바이>
2. 인물탐구 I : 홍안유치원 Lop La & Lop Choi
3. 인물탐구 II : 홍안유치원 Lop Mam
4. 12월 심층인터뷰 I : '성탄절'
5. 인물탐구 III : 홍안유치원 Lop Nha Tre I
6. 12월 특집: 아디가 바라 본 베트남 II <위생/환경>
7. 인물탐구 IIII : 호텔
8. 인물탐구 IIIII : 홍안유치원 Lop Nha Tre II
9. 12월 심층인터뷰 II: 12월 31일
10. 2011년 계획



12월 특집: 어디가 바라 본 베트남 I

## <Xe May-오토바이>

베트남 시내 벤치에 딱 1분만 앉아 있으면, 한국에서 평생 볼 수 있는 오토바이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오토바이를 볼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 횡단 보도를 사이에 두고 약 200여m가량 늘어선 오토바이의 대열. 마치 출발선에 대기 중인 오토바이 경주대회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거대한 시위 물결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인구 대비 오토바이 보유 수가 세계 최고인 베트남. 인구 8600만명에 오토바이가 1500만대. 하지만 자동차 등록 수 150만대. 베트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는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엄청난 먼지와 소음,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데다, 필자도 4개월 동안 수차례 목격할 정도로 잦은 교통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오토바이.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처음 등장한 건 베트남 전쟁 당시였다. 미국의 달러로 흥청거리던 사이공에 일본산 혼다가 부자의 상징으로 거리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시장에서 일본산 혼다가 30여년간 독점권을 갖고 있었기에, 그 영향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고유명사인 '오토바이'를 아예 '혼다'로 대체해서 부르기도 한다.

오토바이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으면서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이다. 자동차에 세금이 100%가 붙는 베트남에선 자동차를 소유한게 부의 기준이 될 정도.

그리고 사랑하는 데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오토바이다. 해가 저물면, 오토바이로 시내 드라이브를 하다가 한적한 공원이나 강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데이트를 즐긴다. (진한 스킨십을 구경하러 밤마다 공원을 찾는 단원도 있다.)

현재 아띠들에게겐 자전거가 일과 후의 주 교통수단이다. 모순적으로 오토바이가 많아서 자전거를 타기가 편하다. 오토바이 대열에 합류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되니까. 베트남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 보니 어디든 도로로 사용가능 한 것이 매력이다.



# 인물탐구 I : 흥안유치원 Lop La & Lop Choi

두 달 가량 아띠와 함께한 흥안유치원! 제일 고참 반부터 소개를 해볼까 한다.

럽 라(Lop La)는 5살 친구들이 공부하는 반으로, 4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다. 유치원에서 제일 높은 반이라 아이들 덩치도 크고 말도 잘 하고, 일도 알아서 척척! 선생님으로는 꼬 짬, 꼬 리엔이 있다. 아이들은 보통 글씨연습, 산수연습, 공동체 놀이, 그림그리기, 옛날이야기 듣기, 노래부르기, 율동배우기 등을 한다.



꼬 짬(Co Tram): 럽 라의 주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노래수업, 그림그리기 수업,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공동체 놀이 수업, 청소 및 배식의 역할을 맡고 있다. 키는 작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목소리가 조금은 특이한 편이라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다.

꼬 리엔(Co Lien): 럽 라의 부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글씨수업, 산수수업, 청소와 배식의 역할을 맡고 있다.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들을 거의 다 하는 만능 재주꾼이고, 아주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원들도 무서워 하는 호랑이 선생님.

럽 쯔이(Lop Choi)는 4살 친구들이 공부하는 반이다. 유치원에서 제일 두번째로 높은 반이고 역시 덩치가 크다. 웬만한 일은 알아서 하지만 집중력이 1분도 안되는 친구들이 꽤 있다. 그 덕분에 사랑의 매가 항상 난무하는 반이기도 하다. 럽 라와 비슷하게 아이들은 보통 글씨연습, 산수연습, 공동체 놀이, 그림그리기, 옛날이야기 듣기, 노래부르기, 율동배우기 등을 한다. 선생님 은 꼬 썬(Co Son), 꼬 튀엔(Co Thuyen)이 있다.

꼬 썬(Co Son): 나이는 어리지만 주선생님을 맡을 정도로 실력도 있고 경력도 있다. 럽 쯔이 대부분의 수업을 맡고 있으며 큰 체구와 어울리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평범한 22세 소녀.

꼬 튀엔(Co Thuyen): 유치원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 엄청난 포스로 유치원 전체를 호령하고 있지만 굉장히 사려가 깊다. 럽쯔이의 질서를 맡고 있으며 부선생님이다. 딸을 미국에 보냈고 아들 둘이 유치원에서 놀다가 간다. 말장난을 즐긴다.



# 인물탐구 II : 흥안유치원 Lop Mam

우선 LOP MAM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LOP MAM은 3살 된 아이들로 구성된 반이며 흥안 유치원의 2층에 위치한다. 교실은 두 교실은 사용하고 있는데, 한 교실은 주로 아이들 밥을 먹고 그림 그리거나 소꿉놀이를 할 때 사용하고 한 교실은 거의 아이들 낮잠시간에 잘 때 사용한다. 인원은 대략 38명 정도이고 남녀비율까지 얘기하자니 생각이 안 난다. 아이들이 3살 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어려서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선생님은 나 포함하여 4명이다. (참고로 다른 반은 3명이다.) 속을 썩힐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다 예쁘고 귀여워서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다.

우선 꼬치! LOP MAM의 주교사이다. 나이는 24살. 결혼을 하였고 여자아이 한 명이 있다. 1살. 이름은 덴 후. 아마 자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LOP MAM 학생이나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공포(?) 대상이랄까. 그렇게 크게 혼내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엄청난 포스 덕분인지 아이들이 엄청 무서워한다. (나조차도 움츠러든다.) 다르게 말하자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 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편이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꼬킴안! LOP MAM의 부교사이다. 나이는 24살이시고 기혼이시다. 남자아이가 한 명이 있고 3살이다. 이름은 띠! LOP MAM의 학생이기도 하다.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물론 선생님들에게도 단연 일등이시다. 물론 놀림을 많이 당하시긴 하는데 그게 다 선생님들의 애정의 표현이신 것 같다. 우리 라온아티들도 엄청 좋아하는 선생님이시다.

마지막으로는 꼬띤 ! LOP MAM의 보조교사이다. 나이는 19살. 사실 액면가로 봤을 때는 절대 19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알고 지내보면 딱 19살이다. 말도 많이 걸어주고 이해도 빠른 편이다. 그래서 대화가 아주 잘 된다. 꼬치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무서워 하는 선생님 중 한 분이다. 그래서 주로 꼬치가 없으면 꼬띤이 나서서 LOP MAM의 질서를 지킨다고 해야할까.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가끔은 나보다 언니 같다. 엄청 잘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주셔서 너무 고맙다.



우선 우리 반 최고의 귀염둥이! 문메이슨을 담은 우리 황!!!!!!

실제로 보면 정말 귀엽다. 진짜 최고의 눈웃음! 물론 밥을 정말 안 먹긴 해도 눈웃음 한방이면 나는 관찮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은 안 관찮다.) 애교도 많고 보보하는 걸 좋아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이다.

# 12월 심층인터뷰 1 : '성탄절'

우리 팀원 대부분이 처음 맞아보는 **Summer Christmas**  
홍안 유치원에서 아이들, 선생님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땠을까요?



나연: 산타복을 입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전 천사 복장이었거든요. 이쁘죠? 저도 개인적으로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선생님들이 기뻐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런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기운이 약간 빠졌어요ㅋㅋ 여름이라 그런걸까요? 크리스마스 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뻔하다가 홍안유치원 덕분에 분위기가 났네요.



하나: 몸이 안 좋아서 이 날 참여는 못했지만, 팀원들을 위해 저녁을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에 마치 잉여인간이 된 거 같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집에서 마냥 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뒀했다는 게 부듯했어요.

진: 산타 복장은 정말 더웠어요. 가짜 콧수염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조금 힘들었구요. 아이들이 'Thay Bao(바오 선생님)!'라고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절 가르키길래 '진짜 산타가 아닌걸 알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장실에서 산타복을 훌렁 벗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절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실망했죠. 그때 아차 싶더라구요. 아기들은 정말 산타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동심을 잃은건가요?



정훈: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구요. 웃도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갈아입느라 고생했네요. 누군가에게 산타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꿈을 줄 수 있어서 흐뭇했어요. 유치원측에서 준비 해주었던 정말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걸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게 바로 동심이라고 느꼈어요.

은빈: 일단 일찍 가서 기분이 상쾌했어요. 이 더운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는다는게 신기했구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무언가 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맛있는 점심에 다시 한번 행복했구요. 하지만 하나언니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점심 먹고 선생님들과 나눈 크리스마스 계획얘기가 재밌었어요.

※12월 초부터 사이공의 거의 모든 상점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시작한다. 당일에는 엄청난 인파가 시내로 몰려들어 분위기를 만끽한다. 하지만 눈도 오지 않는 나라에서 두꺼운 산타복장을 하고 눈 스프레이를 뿌려대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다.

# 인물탐구 III : 흥안유치원 Lop Nha Tre I

베트남의 이나연입니다. 저는 유치원의 막둥이, 2살짜리 아가들을 돌보게 되었었습니다!!^^\* Lop Nha Tre에 대해 말하자면! 2살 짜리 반 아가들로 구성되어 각각 2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는 18명 아이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담당 선생님 두 분이 있는 1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쉽게 잘 울기도 하지만 바로 언제 울었냐는 듯 밝게 방긋 웃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말이 많이 서툴러서 용알이를 하는데 어찌나 사랑스럽고 귀엽던지! 그래도 선생님 말은 잘 알아 듣고 잘 따라 합니다. 그 중에 몇몇 아가들은 누워있기도 하고 떠드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아침! 그리고 Lop Nha Tre에서 할 일일! 점심 때,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밥도 먹여주고, 낮잠 자기 전에 옷도 갈아 입혀 줘야 합니다. 그 일 밖에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면 되고요^^\*

자! 그럼 저희 반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우선, 두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너무나도 예쁜 고향(Co Hang)!**  
흥안 유치원에서 제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반겨주고, 예쁜 얼굴에 비해 아주 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제압하는 카리스마 있는 무서운 선생님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 한국어도 몇 마디 할 줄 안다. 그래서 더 말이 잘 통하고, 금세 친해 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방면에 호기심이 아주 강하고,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다.

**꼬안(Co Anh)**  
우리 반에서 아이들을 한결같이 돌보아주시는 나무 같은 든든한 존재 꼬안! 어느 정도 나이도 있으시고, 결혼도 하셨다. 지금은 유치원 근처에서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살고 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많이 수줍어하시지만 친해지면 말도 많이 붙여주시고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여성스러운 면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 분이다.

## 마지막으로 흥안 Lop Nha Tre를 주름 잡고 있는 우리의 막강 악동 Dai(다이) !!

아, 정말 이렇게 귀여운 아가는 처음 본다. 모든 선생님들이 Dai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니깐, ^^ Dai는 3살 못지 않는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만큼 힘도 아주 썩다. 가끔 내 등에 매달리면 그 몸무게를 어찌나 감당하기 힘든지.. 하하^^ 그리고 항상 반에서 있다 보면 사라지는 Dai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녔었다. 아주 활발하고 통통 튀는 아이다.

그리고 식욕도 강해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손을 내밀던 아이다.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말이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정말 보지 못한 사람이 아쉬울 정도다.

악동인데도 이 아이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가지! 무슨 상황에 있어서도 언제나 '씨익' 웃는다. 혼나고 있을 때, 슬픈 척하다가 바로 웃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된다. 금세 맘이 풀린다. 웃으면 안 되는데 말이다^^ 정말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아가다.



# 12월 특집: 아디가 바라 본 베트남 II 〈위생/환경〉

새삼 느끼고 있다. 한국이 얼마나 깨끗한 동네인지. 베트남에서 생활하며 위생에 대해 많이 보게 된다.

평범한 주말이었다. 사이공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 멀미 때문에 괴로워 하는 한 여성분이 있었다. 결국 검은 봉지에 토를 했다.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그 여성분의 다음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 봉지를 그대로 버스 창문 밖으로 떨어트리는데 아닌가!? 주변 사람들도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반응.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까? 이것도 그냥 베트남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하나?

홍안 유치원에 눈병이 유행했다. 물론 우리 단원들도 눈병으로 고생했다. 단지, 눈병 걸려도 쿨하게 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 모두 같이 고생했다. 같이 아프다는 동질감은 생기는 것 같았다. 한 단원은 한국에서 걸리고 싶어도 걸리지 않는 눈병을 두 번이나 걸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신기해 했다.

유치원의 위생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실 유치원 뿐만은 아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생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다. 아직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할까? 손톱을 너무 길게 기르는 사람이 많다. 코를 팔려고 손톱을 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크하게 코를 파는, 쓰레기를 길에 확확 던지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민망해 한다.



HÃY BỎ RÁC  
VÀO THÙNG



사실 사이공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이도 크다. 사이공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환경조성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마치 포장되어있다고 할까?

오토바이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공장도 한 몫을 한다. 기관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싱가폴에서 오래 생활한, 현재 대학도 싱가포르에서 다니는 베트남 친구에게 위의 얘기를 들려줬다. 그 친구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위생이나 환경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이공 강에서 더 이상 수영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마치 예전에 한강에서 수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너무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요즘에 다시 돈과 인력을 투입해 정화하고 있다는 얘기와 별반 다르게 없어 보인다. 그럼 이 나라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 개발도상국이 왜 더러워 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베트남 교민 수가 10만 명에 육박한다. 많은 수의 한국 기업들도 진출해있다. 그리고 많은 양의 공장 폐수도 사이공 강에 흘려 보내고 있다. 베트남 사람에게 직접 이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 거렸다. 무라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국가 입장에선 성장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 환경규제를 까다롭게 하면 한국 기업들이 안 들어오려 하니까. 그럼 일자리도 줄어든다. 복지가 중요하긴 한데, 먹고 사는 게 문제인 사람에게 복지나 성장, 분배에 대한 이념을 얘기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위생이나 환경에 대한 개념은 일단 자기 배가 불러야 생각이 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 본다. 질병에 대한 것도 일단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 인물탐구 ⅢⅢ : 호텔

Cao Son Lam Hotel (Cao-→높은, Son-→사장님 아들 이름, Lam-→사장님 이름. 높은 Son과 Lam?)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보는 호텔 가족들. 이젠 정말 가족 같은 분들. 여기에서 소개해볼까 한다.

**쭈 또안(Chu Toan):** 호텔의 사모님인 메 화의 오빠로 호텔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청소에서부터 수리까지, 호텔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얘기를 할 때면 항상 웃는 얼굴. 동네 아저씨 같은 편한 인상을 갖고 계신다.

**만(man):** 메 화의 조카. 호텔 로비에서 항상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 빅뱅의 태양이 제일 좋다며 힙합을 사랑하는 친구. 요즘엔 춤을 배우러 다니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라온아띠 바람막이를 입고 다닌다.

**안 킴(Anh Kiem):** 호텔사장인 쭈 램의 사위이자 쭈 흥의 남편으로, 덕수염이 매력적인 사람이다. 항상 안 킴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마치 형 같은 존재. 특기로는 밤에 맥주 들고 문 두드리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쭈 흥(Chi Huong):** 안 킴의 아내. 한국 회사에서 15년째 회계를 맡고 있다. 사장님 이름은 '흥수 킴'. 체구는 작지만 성격은 여장부. 남편을 꼭 쥐고 산다. 취미는 쇼핑.

**쭈 램(Chu Lam):** 호텔의 사장님. 부탁을 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 쿨한 성격과 시크함을 겸비하고 있다. 호탕한 웃음 소리가 매력. 자주 쓰는 말로는 'An com chua? (밥은 먹었니?)'

**메 화(Me Hoa):** 호텔의 사모님. 역시 쿨한 성격과 도도함이 매력이다. 매일 아띠의 아침식사를 챙겨주고 계신다. 특기로는 계란후라이 올린 베트남 라면.



# 인물탐구 ⅢⅢⅢ : 흥안유치원 Lop Nha Tre Ⅱ

베트남의 나하나입니다. 유치원의 막내둥이! Nha Tre 2반(이하 어린이반)에 대하여! 자, 들어보세요.

Hong An 유치원에 두 살배기 이하의 아이들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반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 특징과 아이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린이 1반과 어린이 2반으로 나누어져 배정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1반과 2반의 특징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어린이 2반은 15명의 아기들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보살펴주시는 베트남 선생님 두 분이 계시답니다. 바로 투이(Thuy)선생님과 안(An)선생님이세요.



우선, **투이 선생님(Co Thuuy)**의 첫 인상은 천상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다룰 때 대부분 혼내지도 않고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아이들의 짓궂은 행동에 대해 고쳐주려고 노력합니다. 나긋나긋한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압도하고, 비록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동시들을 읊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최연소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안 선생님(Co An)**! 쪽스러움을 많이 타는 수줍은 소녀 같으면서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 이름: 니 (Nhi)

좋아하는 것: 먹고 먹기 그리고 또 먹기, 김범~이라는 별명을 불러주는 것, 공중 그네 타기

특징: 흥안 유치원의 막내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는 니! '니' 라는 이름보다는 김범~이라는 별명으로 더욱 유명한 아기입니다. 늘 애교가 많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 니는 욕심쟁이 우후훗!



## 이름: 꺼 (Can)

좋아하는 것: 하나 선생님의 무릎, 머리 묶기,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특징: 중간에 전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뚱뚱뚱뚱한 눈에 새하얀 피부를 가진 이쁜 여자아이가 들어와서 다른 여자아이들의 시기 질투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숫기가 없어서 제대로 잘 놀지 못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놀장난감도 양보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무엇보다 울동을 제일 잘 하는 어린이가 되어있습니다.

# 12월 심층인터뷰 II: 12월 31일

2010년 12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지만 아띠의 첫 프로젝트 '홍안유치원'에 가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홍안 유치원. 아띠들은 어떻게 아이들과 헤어졌을까?

정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별로 슬프지 않았는데 아쉬움은 남았어요.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죠. 아! 그리고 아직까지 이름을 외우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네요. 마지막 날인데 아파서 못 온 친구들을 못 봐서 아쉬워요. 아쉬움 투성이네요.

나연: 사실 31일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점심 먹고 고향이 선물 줬을 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고향이 별로 서운해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게 서운하네요.

하나: 오랜만에 방문한 홍안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걱정해주셔서 고맙았어요. 기대도 안 했던 별로 친하지 않은 선생님이 관찮냐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2달이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쉬움 반 시원함 반이네요. 첫 프로젝트를 마무리 했다는 것에 부듯하기도 하구요.



은빈: 아침에 일하면서도 실감이 별로 나질 않았어요. 액자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구요. 안 울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보보해주고 안아줄 때 펑펑 울었네요. 제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데 절 좋게 기억해 주셔서 고맙았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바이바이' 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과의 헤어짐보다 어른들과의 헤어짐이 더 아쉽네요. 베트남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하니 기분이 묘해요.

진: 처음으로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요. 조금 더 놀아줄 걸 그랬어요. 인사를 모두 마치고 유치원을 나오는데, 아이들이 달려와서 집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시원 섭섭하네요. 사실 후련한 마음이 더 크기도 하구요. 여러가지를 느끼게 해준 지난 2달이었어요.

# 2011년 목표!



라운아띠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올 해 이루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순 없지만,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운아띠에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어 공부를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크게 성장 할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베트남어 공부와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500명 만납니다. 매일매일 신나는 일만 가득한 한 해가 2011년이 됩니다.

라운아띠 후속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이예요.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구요, 조금 더 발전하고 싶어요!



라운아띠 활동을 잘 마무리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계획했던 작은 꿈들을 이루어 나가려구요.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